

# “한반도 평화는 계속되어야 한다”

## 한민족 평화도보대행진 회향

원공스님등 전구간 5,000여명 참가  
‘북한어린이 돕기’ 1억3천만원 모금

원공스님과 전인구 예비역 장군을 비롯 17명이 7일 북한 어린이돕기 3000km 한민족 평화도보대행진을 회향했다.

도보대행진단은 100일간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 등 해안가를 거쳐 휴전선 155마일을 가로지르는 3,000km를 걸으며, 쓰레기 줍기 운동과 1억3천2백만원의 북한 어린이 돕기 성금도 모금했다.

이번 행진에는 원공스님, 전인구 단장, 임기주 부 단장, 나까무라신부, 이인석, 최경환, 이이순, 최정규, 박석호, 이필균, 남정미, 권오균, 허승균, 최연선, 김희진, 함상준, 김지성씨가 완주했으며, 지역별 구간별로 약 5,000여명의 국민들도 함께 참가, 한반도

평화를 기원했다.

불자 예비역장군 전인구 단장은 “155마일 휴전선을 걸으며 통일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부처님 전에 기원했다”며 “도보순례를 하며 육체적인 것보다 마음의 평화가 중요함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도보대행진단은 지난 3월 30일 한반도 평화와 남북이산가족 상봉기원, 북한 어린이 돕기 성금모금, 해안환경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 여의도공원에서 출정식을 개최한바 있다.

한편 공동주최사인 대한적십자사, 중앙일보, 환경정의시민연대는 7일 상암동 월드컵 평화의 공원에서 ‘한민족 도보 대행진 Peace Korea’ 해단식을 갖고, 인기가수 조청 축하공연을 펼쳤다.

대한적십자사는 홈페이지 내용 및 포스터, 리플릿, 사진, 동영상 등을 한곳에 모으는 평화대행진 자료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pia.com

# 두륜산을 그냥 놔두세요!

## 케이블카 운행으로 산림훼손 심각

### 대행사 “서한레저 봉쇄 약속 어겼다”

조계종 22교구 본사인 대흥사가 있는 해남 두륜산에 케이블카가 운행되면서 관광객들과 등산객들에 의해 만들어진 등산로가 폐쇄되지 않아 산림이 심하게 훼손되고 있다.

대흥사에 따르면 두륜산은 동백, 단풍, 소나무 등이 군락지를 이룰 만큼 명산으로 알려져 있으며, 도립공원으로 지정돼 잘 보존돼 왔다. 그러나 지난 2월 해남 삼산면 집단시설지구 뒤편에서 해발 570m 고개봉

에 이르는 1.6km 구간까지 케이블카가 운행되면서 관광객과 등산객의 출입이 잦아 산림이 망가지고 있다.

케이블카 운행업체인 서한레저측과 해남군은 등산로가 아닌 고개봉 정상에서 헬기장까지 2km 구간을 봉쇄하지 않은 채 ‘등산로가 아니다’라는 간판만 세워 놓았다. 이에 따라 관광객과 등산객들이 출입하면서 산림훼손과 환경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흥사의 관계자는 “케이블카 설치 당시 환경영향평가에서 서한레저측은 케이블카를 운행할 경우 산길을 봉쇄해 오염을 막겠다는 약속을 했으나, 운행 5개월이 되어 가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아 산림 훼손과 사고 위험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봉영기자

## 봉은사, 수행환경 수호 탑돌이

### 공사관련자 참여·문책 촉구

봉은사주지 원혜는 8일 1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대웅전 앞에서 수행환경수호를 위한 I-PARK아파트 공사중지를 염원하는 탑돌이(사진)를 개최했다.

이날 탑돌이에 앞서 봉은사 사찰환경수호대책위원회는 “봉은사의 요구를 묵살하고 건축을 강행한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은 참회하라”며 “건축의 사전심



의와 봉은사와 협의조차 거치지 않은 초고층 아파트 신축을 허가한 강남구청장은 관련자를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봉은사는 이에 앞서 2일 서울 성북동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의 자택을 향의 방문했다.

김원우기자

## 평화실천 광주전남불교연대

### 15일 선덕사에서 정진법회 개최

평화실천광주전남불교연대(상임대표 행법스님)는 15일 선덕사에서 ‘평화실천 정진법회’를 개최한다.

‘평화실천광주전남불교연대’의 정진법회는 회원단합 모임과 평화의 생명, 인권을 위한 기도정진 순으로 진행된다.

한편 평화실천광주전남불교연대는 최근 격월간 ‘평화실천’을 펴냈다. ‘평화실천’에는 5.18 23주년 기념 ‘5월 평화캠프’ 사진과 행법 스님의 ‘새만금은 살려야 한다’, 회원탐방으로 ‘예쁜 꽃밭 광명화 김희순’ 회원을 찾아서, 불교연대 성명서 등 다양한 내용을 실고 있다. 문의 (062) 263-4742. 김원우기자

## 동국학원, 장충수영장 개장

학교법인 동국학원이 운영하는 장충수영장(jcpool.dongguk.edu)이 6월 28일 개장했다. 장충수영장은 오는 8월 17일(일)까지 51일간 문을 연다.

동국대 캠퍼스내에 있는 장충수영장은 오랜 보수 작업을 거쳐 국제규격(50m X 25m)의 경기용 풀, 다이빙 풀, 아동용 풀, 최신형 미끄럼틀을 비롯해 휴게실, 탈의실, 샤워실, 원목 선반장, 깨끗하고 아늑한 휴식공간 등 현대적인 시설을 갖췄다.

1974년 12월 동국학원이 인수한 총 2,266여평 규모의 장충수영장은 하루 3천명이 이용 가능하다. 문의 (02) 2260-8981,8982 김원우기자

# 우리결 우리 신도

## 하는일 달라도 한마음으로...

### 서울 내원사 정인숙·심영임 보살

인간의 끝없는 욕심이 별장계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 놓고 있는 산. 그 북한산 자락 아래에 서울 정릉 내원사(주지 정수)가 있다.

내원사에 정인숙(53, 금강보) 보살이 적을 두기 시작한 것은 2000년 무렵, 고등학교를 다니는 자녀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어느 불자의 소개가 인연이 됐다. 능인선원 불교대학 21기를 졸업한 정 보살은 마음 편하게 다닐 사찰을 찾는 중이었다.

그에 비해 심영임(55, 해명주) 보살의 불연(佛緣)은 조금 더 깊다. 30대 무렵 법정스님

사이였을 정도라는 심 보살은 “시댁 식구들의 영향 때문인지 남편을 비롯해 가족 모두가 불자”라고 자랑을 했다.

정 보살이 사찰에서 주로 하는 일은 컴퓨터와 관련된 일들이다. 능인불교대학을 다니면서 배운 컴퓨터 실력으로 신도관리와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다. 심 보살은 사찰에서 손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마다하지 않는다.

“열심히 기도를 드려 여생동안 부처님께 좀 더 가까이 가고 싶다”는 정 보살. “묵묵히 전 교육을 조금 더 받아 포교사 활동과 봉사



내원사의 대표봉사자 정인숙(왼쪽)보살과 심영임 보살이 종무소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 정보살-부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요

### 심보살-포교사, 봉사활동 하고 싶습니다

의 글을 읽으며 부처님께 가까워진 심 보살은 호국 원광사를 다니면서 신심을 다졌다. 이후 서울 법륜사에서 구산스님과 법정스님의 법문을 들던 심 보살은 96년부터 내원사를 찾게 되었다.

두 보살들의 공통점은 단양 구인사와 인연이 있다는 것. 정 보살은 “전정 부모님이 구인사 신도여서 어릴 적 부모님의 손을 잡고 몇 번 구인사를 찾은 기억이 있다”고 회상했다. “시아버지가 천태종 종회의원(김정수 거

활동을 하고 싶다”는 심 보살. 불자들이 이상(我相)을 잡고 좀 더 큰마음으로 불교 발전을 위해 노력했으면 한다는 바람을 함께 내놓는 두 보살. 두 보살들에게 북한산 관동도로 문 제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우리 사찰도 북한산에 위치하고 있어 관심이 많습니. 사찰을 찾을 때 조금 늦고 힘들더라도 걸어가는 것처럼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남동우 기자



### 추천의 말

#### 정수스님 내원사 주지

정인숙 심영임 두 보살들은 늘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활합니다. 즉 말로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입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서 실천하

## 생활에서 실천하는 참불자

는 참불자라는 것입니다. 또 사찰과 관련된 일들에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 다른 불자들에게도 존경을 받기도 합니다. 정인숙 심영임 두 보살은 우리 내원사를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 같습니다.

# 보령스님 파동명상수련으로 영통(靈通)을 이루다!

파동명상수련으로 영통靈通을 하신 스님들이 여러분 계십니다만 여기에는 허락을 하신 분의 사례만 실고 있습니다.

◎ 강원도 어느 산중 토굴에서 수행하시기에 의하면 새벽에 파동명상을 통하여는 보령스님(☎ 017-556-5900)은 저 마음 깊은 곳으로 의식을 옮기는 순간, 희 연구소와 인연(2003년 1월 말경)을 삼라만상의 모든 이치가 한 눈에 들어왔던 날 새벽, 우주의 무한한 에너지를 끌어들이 수 있는 파동명상수련을 통해 우에 떠 있는 구름이 맑은 연못 위에 비치 주의식(자연의식)과 합일을 이루는 순간, 스님은 홀연히 ‘색즉시공色卽是空 공즉시색空卽是色’의 참 경계를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그 날 아침 스님은 더이 하는 스님의 허락을 겨우 얻어 스님의 상 연구소에 머무르지 않고 길을 떠났다. 스님이 길을 떠나기 전 들려준 이야 말씀은 전해 올립니다.

### ◆ 「파동명상 지도사」양성 과정

우주에 충만한 생명 파동 에너지와 우주의식(자연의식)을 100% 활용할 수 있는 수련을 통해 인간의 내면에 숨어 있는 놀라운 잠재능력과 우주의식을 끌어내어 자신과 타인의 영적(靈的)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는 영식(靈識)과 능력을 획득하게 되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영적 진화와 발전을 돕는 <영혼 명상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수련내용

- ◆ 파동명상제령: 몸속에 있거나 장애를 주는 영가와 빙의령이 영계로 떠나는 것을 제주(祭主) 또는 신도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한다
- ◆ 원격명상제령: 제 3자가 파동명상상태에서 원하는 사람의 몸속에 있는 영가를 천도한다.
- ◆ 파동명상수업의: 태아령, 조상령, 빙의령, 축생령, 구병시식, 천도 및 제령
- ※ 영통靈通수련: 특별한 기법의 파동명상을 통해 靈通을 열 수 있게 한다. (숙명통..)
- ◆ 수련대상: 스님, 법사, 기공사, 의사, 약사, 기타 상담사
- ◆ 수련일시: 매월 2째주, 4째주 (본원사정에 따라 변경 피)
- ◆ 수련과정

- ① 파동명상 전문반: 파동명상 지도사 수련과정으로 6일간 수련으로 지도사 자격증 수여(수련비 200만원)
- ② 영통수련반: 전문반 수련후 상담후 등록(수련비 300만원)



- ◆ 지도교사 박봉순
- ◆ 2001년 10월 SBS 호기심천국
- ◆ 2002년 4월 KBS VJ특공대
- ◆ 2003년 3월 i-TV 유희한초대 출연